

## 일부 여대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

김 문 실\* · 김 애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시절은 인간발달의 전과정을 통하여 불때 최고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시기이며 전 신체기관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의 진가를 망각하거나 경시하며 건강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훗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며 이 세대의 주인공임은 물론 젊은 시절에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의 양육과 역할 모델로서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임신초기부터 자녀들을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질병과 사망의 원인중 예방이 가장 가능한 요인은 흡연으로 밝혀졌으며(McDermott, 1992; penner, 1989; WHO, 1983)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다. 흡연의 주된 피해는 심장질환과 폐암이며 그 외에도 각종 호흡기 질환, 임신에 대한 각종 합병증, 소화기 장애 등 수 많은 질병이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199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30대의 가임여성에게 있어서 흡연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조, 1987).

특히 가임연령기에 있는 여대생들의 흡연은 그들의 임신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출산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Bonham, 1981; Rona, 1985; Berkey, 1984; Sandler, 1985)을 감안 하여볼 때 여성의 흡연은 건강상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흡연율을 보면 서울시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8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1987)에서 흡연자는 전체의 32.5%로 나타났으며 그 중 2.5%는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였다. 흡연에 대한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도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들이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김(1992)의 체육계 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서 62.8%만 옳은 지식을 나타내어 여대생들의 흡연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됨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소년의 흡연(김, 1990; 민, 이, 1976; 배, 1986; 인, 1992)에 대한 조사연구나 남자 성인에 대한 연구(박, 1993; 신, 1982; 김, 1990; 권, 1990)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흡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그러므로 여대생의 흡연경험을 탐색하여 흡연행위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흡연행위와 관련된 변인을 연구하여 이를 금연교육에 활용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

여대생의 흡연행위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내에서 흡연에 대한 의미나 동기, 태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흡연행위는 여대생에 따라 다양하며 독특하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의미와 가치, 동기, 흡연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때 흡연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근거이론은 현상의 의미,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경험의 본질, 현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능동적 역할, 변화와 과정, 조건, 의미, 행위의 상호관계를 중시한다(strauss, corbin, 199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흡연행위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흡연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된 변인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제 자료에서 근거된 실증적인 금연 건강교육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며 흡연행위 이론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여대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해 한국어대생의 흡연행위의 과정을 파악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흡연경험을 범주화 하여 흡연행위의 의미를 파악한다.
- 2) 흡연행위와 관련된 구조적 상황, 전략, 결과를 파악한다.
- 3) 여대생의 흡연행위의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흡연행위 실제이론을 구축한다.

## II. 문헌고찰

### 1. 흡연과 긴장

담배의 유해 물질이 인체의 여러 기관에 미치는 피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배에는 3000여종의 화학 물질이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유해 물질은 니코틴(nicotine), 타르(tar), 일산화탄소(Co)가 있다(Hoffman, 1983).

이중 니코틴은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모든 니코틴성 수용체와 결합하여 흥분작용을 일으키며 대량의 니코틴이 공급될 때는 흥분작용의 시간이 짧아지고 신경절 봉쇄로 인한 마비 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흥분작용에 이어 마비기에 들어가게 되면 끝내는 호흡중추 및 말초호흡근 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또한 흡연자들이 맥박이 빠른 것은 니코틴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 심혈관질환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심근경색, 허혈증세를 나타내게 된다(정, 1983).

또한 장기간 습관적으로 흡연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 결막염, 시력장애, 시신경 위축, 시신경절의 퇴행변성으로 담배약사라는 질병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니코틴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김, 1987).

니코틴 약리작용중 특이한 것은 빠른 속도로 내성이 생겨 습관이 되는데 Leader(1987)에 의하면 심리적 효과도 중요해서 일단 담배맛을 알게된후 담배를 버리면 성신적 안정감을 느끼고 긴장감이 해소된다고 한다.

타르는 흡연자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물질로 단백질성 질소 형태로 존재하며 호흡 기계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에서 암을 유발하며 특히 요충으로 배출되므로 방광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김, 1987). 또한 흡입되는 타르는 크기가 미세하여 폐의 심부까지 흡입될 뿐 아니라 흡입된 타르의 20%정도가 인체에 잔류하여 유해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Sutton, Russel, Lyer, 1982).

담배 연기 속에 일산화탄소가 0.5~1.0%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폐에 흡입되는 일산화탄소량은 평균 400ppm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하였다.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CO IIb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하여 신체세포 조직 전체를 무산소중 상태를 만들어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며 흡연은 크게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에 질병을 발생시키고 각종 암을 유발 시키는데 특히 폐암, 심장질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박, 1989).

흡연은 양과 시작연령에 따라 폐암발생과 관계가 있어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폐암발생률이 높으며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흡연량에 따라 증가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일찍 흡연을 시작할 때 폐암발생과 관련이 높고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세에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폐암의 발생률은 3배가 된다(Anderson, 1985).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은 매일의 흡연량에 따라 증가하여 흡연을 중단할 경우 강력한 위험 요소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금연하

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율이 줄어들어 금연후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고 하였다 (Anderson, 1985).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타인이 피우는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간접 흡연이라 한다 이는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자녀의 질병 발생률, 임신기간중 모성의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 흡연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의 폐암발생률과 관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가족을 위해 흡연자는 금연해야 한다고 하였다(Fielding, 1985; Hirayama, 1981).

특별히 흡연은 여성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산모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모체와 태아의 헤모글로빈을 비 활성화시키고 니코틴의 혈관수축작용으로 인해 태반혈류감소, 식욕감소를 일으킨다. 흡연산모에게 조산율은 증가하며 임신중 흡연은 태아의 심혈관, 위장관, 비뇨생식기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조, 1987). 흡연여성에게 불임율은 높으며(Neri, 1969) 비임신시흡연은 조기폐경, 골조공증, 자궁경부 이형증을 증가시키며 경구 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의 위험을 높인다(Clarke, 1985).

어머니의 흡연으로 어릴때부터 간접흡연을 하게되는 어린이에게서 천식음과 진성천식이 많이 나타나며 임신시 어머니의 흡연은 출생시 아기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며(이, 1987) 부모의 흡연은 청소년 자녀의 수동적 흡연으로 인해 이후에 흡연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Brink, 1988).

흡연하는 여성이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배나 되며(Fielding, 1985) 조산, 사산과도 관련이 있어 신생아 사망을 증가시킨다(penner, 1989). 흡연은 산모에게 모체와 태아의 헤모글로빈 비 활성화, 니코틴의 혈관 수축작용으로 태반 혈류감소, 혈장량의 감소를 초래해 태아의 뇌성장을 지연시킨다(Brink, 1988).

또한 여성흡연은 여성의 수정능력을 저하시키는데 흡연자는 난관성 불임증의 가능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2.7배나 높고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T-cell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이 보고 되었다(이, 1992).

이와같이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여대생의 흡연행위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워져야한다.

## 2. 선행연구

10여년부터 금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

우 흡연율은 50%이상 감소된 반면 한국의 경우 흡연율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39세 남자에게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있으며 남자 대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55.7%~78%에 이르고 여대생의 경우 1.3~19%를 나타내 여대생의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서, 1988).

흡연 양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흡연은 연령, 성, 건강 신념, 교육, 직업과 관련이 있고(Kirsch, 1987) 한국 대학생의 경우 흡연 동기는 정서적 안정 추구를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금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60%를 나타내어(김, 1990) 노년에 비해 금연 의지가 낮음이 보고되었다.

여대생 흡연자의 실태파악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중 28.9%의 여대생이 흡연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하는 경향이 있고 카페나 테스도방에서 주로 흡연하며 여대생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 되었다(이, 1987).

여대생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경험, 전공에 대한 불만족감, 불규칙적인 식사습관, 건강에 대한 흡연의 관련성 인식부족이 제시되었고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여대생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보다는 무료해서 답답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1987) 또한 여대생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이 신장에 주는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흡연을 심각한 건강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금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이, 1987).

또한 김(1987)에 의하면 흡연자의 92%는 금연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나 젊은성인의 경우 금연 운동은 효과가 적고 호응도가 낮다고 하였다. 청소년에 비해 성인의 흡연은 흡연 인구가 수적으로 많고 흡연횟수나 흡연량이 많고 흡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습관이나 중독 상태를 초래하므로 흡연이 습관이 되기 전에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 1987).

성인의 흡연 양상은 습관적인 형태, 니코틴중독이 심한 형태, 사회심리학적 의존도가 강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정의학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흡연 양상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처음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20대이며(이, 서, 조, 1992) 흡연 농기는 남자의 경우는 호기심 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अच्छ게 느끼는 경우 금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의, 1992).

Clyton(1991)의 흡연행위에 대한 성별의 차이 연구 결과에서 남성흡연의 동기는 사회적 불안정감과 연관되는 반면 여성흡연의 동기는 자기 확신, 사회경험, 반항심과 관련되므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성별에 따른 흡연동기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는데 니코틴 패취나 니코틴 껌을 사용하는 방법, 금연침을 사용하는 방법(오외, 1991), 최면술을 사용하는 방법(Holroyd 1980), 자기 스스로 시행하는 행동 수정 방법(Moos, 1982), 금연 교육(김, 1990; 지, 1988; young, 1988) 등 여러 연구들이 각각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약물 사용은 금연을 유도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고 금연침은 다른 금연 방법과 병행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스스로의 행동 수정도 중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치료자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방법이며 최면술도 그 효과가 다양하며 가장 성공적이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이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하였다(Bailey, 1985).

금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연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도를 가져야 하며 금연의 동기화가 중요하며(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3) 또한 흡연 행위와 금연 행위는 대상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지, 1988).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개인의 반응 상태의 선유 경향이며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하는 용어로 사정될 수 있다(Green, 1980).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하여 타인들과의 접촉, 자연적 혹은 문화적 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사고, 판단, 이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 1982; 진, 1978).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다양하게 감시하여 관찰한 후 자신의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자기 반응으로 보상과 처벌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동이 조절되므로 행위가 변화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동기로서 볼 수 있다(Vaies, 1994).

이와같이 금연 진학을 위한 연구들을 보면 금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흡연에 대한 태도, 기대, 가치, 신념, 의지를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의 관심 영역에 초점을 둔 금연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흡연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성인이나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한 실태 조사이며 금연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흡연이 습관화되어지기 이전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기의 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서 20대 초반의 여대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되고 여대생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므로 오히려 금연에 대한 인식이 낮고 흡연이 습관화 되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므로 이들 여대생의 흡연인구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여대생의 흡연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흡연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됨으로서 흡연을 진행시키는 사례, 흡연양상, 흡연에 대한 의미, 흡연을 촉진시키는 상황, 흡연결과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될 때 이를 근거로 여대생의 금연전략이 확립될 수 있다.

### III. 연구과정

#### 1.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 획득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인지하는 이론적 민감성 획득을 중요시하며 이는 연구과정, 독서, 실무경험을 통해 획득되어진다(Strauss & Corbin, 1990).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흡연, 흡연행위와 관련된 문헌을 읽었고 실제 흡연자와 접하면서 그들의 호소를 듣고자 노력하였다.

#### 2.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이론적 표집이란 형성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 이론적인 적합성이 있는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자료수집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한 여대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고 이후에는 범주와 분석적 이야기(story line)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48명으로 연령은 20세-26세였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대생이다.

####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11월부터 1996년 6월까지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목적을 심층면담 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동의

를 구했으며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였다. 심층면접시 소요된 시간은 30분-1시간으로 면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적한 장소를 선택했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면담하여 참여자가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허용하였다. 심층면접시 구조화된 질문을 피함으로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참여자가 자유로이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공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접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자료수집을 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마음속에 가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흡연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2. 흡연을 하게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3. 흡연 후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4. 흡연으로 인해 변화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녹음된 모든 자료는 참여자의 언어 표현 그대로 기록되어 졌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0)의 분석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구하였다.

자료의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를 행하였다.

둘째, 파라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및 과정분석으로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련성을 지어 paradigm model을 통해 범주간 관계를 연결시켰다.

셋째,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관계를 진술하고 흡연행위를 인과적상황, 현상, 맥락, 중재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과정(process)으로 나타낸 이론적 도해(diagram)를 제시하였다.

####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근거이론 방법론에서의 연구의 타당도는 면담환경의 친숙함, 계속적인 자료의 비교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론적 민감성을 획득하기 위해 장기간의 문헌고찰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분석시 수집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합의를 통해 분석했으며 결과를 이차자료인 문헌을 통해 계속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구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 1)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개념

근거 자료에서 여대생의 흡연 경험으로 나타난 개념은 34개로 개념화 되었고 지면상의 제한으로 원자료는 일부만 제시되었다.

분석의 1단계에서 원자료로 부터 나타난 개념은 다음과 같다.

##### <흡연에 대한 호기심>

상남삼야, 술 취해서 즉흥적으로 피게 되었고, 아무 말도 모르게 한 대 두 대 피다가, 처음에는 재미로 피우기 시작했는데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하게 되고, 어떨까 궁금했었고

##### <반항심>

반항심, 여자라고 못피우겠냐는, 괜히 케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개기라고나 할까...

##### <책임성>

담배를 피고 안피고는 일종의 자유, 자기관리는 자기가 하는거니까,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흡연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 <남성과의 동등함>

남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나는 내가하고 싶은 것 할거야, 여성의 흡연이라고 해서 남성과 달리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담배 피우는 여자는 오히려 용기 있는 여성이다, 도전할 수 있는 여성이다.

##### <후회>

후배들이 나를 따라 막 피우는 것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는 싫어한다,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낀다,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다, 계속 피울 생각은 전혀 없다.

##### <은혜>

진한 친구에게는 숨기려고 하고, 가족이 알면 맞아죽죠, 부모님이 아시게 된다면 아마도 쫓겨날 것이다.

##### <기호품>

좋은 친구, 그냥 맛으로 피운다, 좋아서 피운다 담배가 좋으니깐. 담배가 싫어질때까지 영원히 피울 것이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일종의 기호라고 생각한다.

##### <습관적인 흡연>

그냥 습관이에요, 담배가 생활화 되었고 이제는 하루종일 담배생각만 해요.

습관처럼 카페에 들어갈때마다 한두개피씩 피우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먼저 생각나는 것이 담배, 담배를 끊으면 입이 허전하다. 담배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어

#### <식후흡연>

식후에 피면 소화가 잘되는 것 같고, 밥먹은 후 안피우면 꼭 뭔가 빠진 느낌이 들고 저녁밥 먹은후 가장 많이 생각이 나오, 배고플 때 식후 담배 하나는 꿀맛.

#### <식이의 대체>

배가 고평데 정말 먹을것이 없을 때, 너무 배고파 담배를 피고 밤에 술마실때에 보다 많이 피게된다, 짜장면을 먹거나 떡볶이 같은 매운 것을 먹으면 왠지 피우고 싶어진다.

#### <음주>

안주 없이 술을 먹을순 있어도 담배없이 술을 못먹는다, 술하고 펄펄야 펄수 없는 것 같아.

#### <무요힘을 느끼는 상황>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허전해서 몹시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별로 마땅히 해야할 일이 없을때는 생각나기도 해, 공강시간이나 수업 끝나고나, 쉬는시간에 심심해서 손이가고 그저 습관처럼, 좀 한가하면 그땐 거의 습관적으로 담배를...

#### <심리적 갈등>

남자 친구와의 고민 때문에 담배를 처음 대하게 되고 오빠와의 사이가 안좋아서 피로워서. 힘들 때 찾게 되고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데가 없고, 짜증날 때, 스트레스를 받아.

#### <메스컴의 여성흡연>

대학생들이 담배를 피니까 좀 팬찮은 것 같더라구요.

요즘 TV프로에서 여성의 흡연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 멋있다고 보다는 좀 달라보이고, 담배를 피는 여자를 보면 매우 신기해서 쳐다보던 기억...

#### <간접흡연 경험>

국민학교때 담임선생님의 담배연기가 별로 싫다고 느끼지 못했고...

#### <친구의 흡연>

친구들이 많이 피워서 나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함께 다니는 네명의 친구중 한명은 나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시작하였고 우리의 흡연이 친구들에게 자극이 부추김을 준 결과가 된 것.

혼자 안 피운다고 하기가 어색했고 학회의 술자리에서, 친한사람들중 반은 피운다.

#### <공간적 가능성>

내방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는 식구들을 생각해서 안피우고 알고 있는 사람앞에서만 양해를 구하고 피운다. 커피숍에서 담배 사기가 편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학교 후문에서 담배를 팔고, 못피고 답답할때는 거의 서클룸을 찾게된다. 화장실에서 창문열어놓고...

#### <경제적 가능성>

점심 값이 없어 굶어도 담배는 산다.

#### <가족의 금연권유>

엄마가 딸이라서 못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나쁘다고 못피게 하여, 큰 오빠가 심각하게 훈을 것을 권하죠. 전처럼 옆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 <동료의 금연권유>

선배들이 건강상 안좋다. 여자라는 조건으로 피지말라는 선배들도 꽤 많고, 교회친구들이 막으려고 하고, 내 친한애가 뜯어 달리고,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강하게 말렸으나, 건강에 나쁘니까 많이 피지 말라고 하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피지 말라고 하면 자제할 것 같고,

#### <체질적인 요소>

담배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다른사람 담배 피우는 냄새가 너무 너무 싫은거 있죠. 디스는 순해서 가장 내 입맛에 맞다. 피뎀과 눈물이 났고 계속 쓴맛을 느꼈고...

#### <담배냄새>

담배는 가방에 넣어 다니는데 가방에도 냄새가 배고 뿔터나 가루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청소해야 한다. 야외 갈 때도 냄새 날까봐 향수뿌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

꽤 꽤하고 곰팡이 같은 냄새가난다.

#### <건강에 대한 무관심>

보건소에서 금연 비디오 보고 핏집에 더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도 죽는 인생, 저래도 죽는 인생인데 담배 때문에 더 암에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담배의 위험은 알지만 우리는 젊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고, 나는 괜히 예외일 것이라는

#### <체중증가>

담배를 얼마간 피지 않으면 체중이 다시 느는 것 같고, 살 빼려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담배 핀후에 7kg가 감소되고 담배를 끊으면 살이 다시 썰까봐 못 끊겠다. 담배를 물면 군것질을 안하게 되서 44kg까지 살을 빼고 싶고, 번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 <미래의 건강에 대한 염려>

결혼을 30살 정도에 할 계획이므로 5년 정도는 몸을 보해야 한다. 임신했을때는 끊어야지,

임신중에는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야 하고 여자

가 흡연을 하면 몸이 더 상하고 엄마가 되려면 담배를 미리 끊어야 한다.

#### 〈이성과의 교제〉

서로 담배 권하고 불 붙여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오히려 남자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담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 〈가벼운 흡입〉

입안에서만 머물다가 나가는 걸담배이고, 처음에는 빨아들인 후 연기가 그냥 코로 나오는데, 입담배로 피고, 연기를 꿀꺽 삼키면 코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 〈깊은 흡입〉

어느정도 지나면 흡입량이 늘어나 빨아들인 연기가 목을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속담배를 핀다. 한 모금 빨고 깊게 심호흡을 하면 머리가 멍해진다. 한 번 피우면 한갑 정도 피운다.

#### 〈피곤함〉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어지러워서 계단에서 기어 내려오고, 몸이 좀 피곤해진 것을 느끼고, 일어나기 힘들고, 좀 피곤하고...

#### 〈호흡기계의 변화〉

입안이 등등 부었었다. 말이 나오지 않기도 했다. 목이 잘 쉬고 폐활량이 준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언급할 때 발성이 안되고 호흡이 짧아져. 언제나 목에 가래가 끼고 가슴이 답답하고

#### 〈체중감소〉

살도 많이 빠졌다. 3-4kg빠졌다. 식욕에 변화가 생겨 별로 먹고 싶지 않다.

#### 〈피부상태의 변화〉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되는 것 같고 자꾸 얼굴이 검어지고.

#### 〈정서적 이완〉

연기가 나가면서 짜증나는 마음이 같이 나가는 것 같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다. 흡연 후 침착하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 〈사회관계의 변화〉

친구들이 나를 어색하게 대하고 친구들이랑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친하지 않은 아이들은 날 좀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막 췌려보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 2) 개념의 범주화

첫번째 단계에서 행해진 근거 자료에서 도출된 34개의 개념화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기존의 문헌고찰을 참조로 하여 15개의 범주로 범주화되었다.

#### -흡연에 대한 호기심

#### -반항심

#### -당당함

- 책임성
- 남성과의 동등함
- 기호품

#### -후회

- 후회
- 은폐

#### -식이와의 관련성

- 식의 대체
- 식후흡연
- 음주

#### -습관성

- 무료함을 느끼는 상황
- 습관적인 흡연

#### -심리적 갈등

#### -건강과의 관련성

- 담배냄새
- 건강에 대한 무관심
- 미래 건강에 대한 염려
- 체중증가
- 체질적 요소

#### -타인의 영향-타인의 흡연

- 매스컴에서의 여성흡연
- 간접흡연경험
- 친구의 흡연
- 이성과의 교제

#### -타인의 금연권유

- 가족의 금연권유
- 동료의 금연 권유

#### -접근 가능성

- 시간적, 공간적 가능성
- 경제적 가능성

#### -가벼운 흡입

#### -건강상태의 변화

- 피곤함
- 호흡기계의 변화
- 체중감소
- 피부상태의 변화

#### -정서적 이완

#### -사회관계의 변화

## 2. paradigm에 따른 범주분석 및 과정분석

근거이론 방법론에서 축의 부호화(axial coding)는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련성을 지워봄으로써 새로운 방법으로 자료를 묶는 과정으로 paradigm model을 통하여(인과적 상황→현상→맥락→중재상황→작용/상호작용적 전략→결과) 범주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 -인과적 상황(causal condition)

여대생의 흡연을 일으키고 진행시키는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호기심>, <반항심>이 범주화 되었다. <흡연에 대한 호기심>은 장난삼아, 아무생각 없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남들이 하는 흡연을 자신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항심>은 궤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묵살하고자 하는 시도로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 현상(phenomena)

흡연의 중심적인 관념(idea)이나 사건(event happening)으로 흡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흡연의 중심적인 관념으로 <당당함>과 <후회>가 확인되었다.

<당당함>으로는 여대생의 흡연은 스스로 책임지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할 행위이며 남성의 흡연과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여성흡연은 도전적이며 용기있는 여성만이 시도할 수 있는 행위로 참여자들은 인식하였다.

한편 <후회>는 자신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만 후배나 미래의 자녀, 타인들은 흡연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흡연행위를 숨기고 죄책감을 표현하고 앞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함을 뜻한다.

#### - 맥락(context)

흡연을 다루고 수행하기 위해 선택적 작용 상호작용적 전략이 수행되는 특별한 상황으로 여대생의 흡연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흡연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 <식이와의 관련성>, <습관성>, <심리적 갈등>이 확인되어 졌다.

<식이와의 관련성>은 흡연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으로 식이가 흡연과 관련됨을 나타내는데 식후에 소화를 돕기 위해 또는 술 마실 때 함께 흡연하게 되고 배가 고플 때 흡연을 행하게 된다.

<습관성>은 흡연이 생활화되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입안이 허전함을 느끼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흡연을 행함을 의미한다.

<심리적 갈등>은 인간관계가 안 좋을 때,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공부, 회의, 미술과 같은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 흡연을 시도하게 됨을 나타낸다.

#### - 중재상황(intervening condition)

중재상황은 흡연을 수행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으로 흡연을 방해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건강과의 관련성 지각>, <타인의 영향>, <접근가능성>이 흡연을 촉진시키거나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과의 관련성 지각>의 하위범주로 “담배냄새”, “건강에 대한 무관심”, “미래의 건강에 대한 염려”, “체중증가”, “체질적 요소”가 확인되어 졌다.

담배를 소지할 때 느끼는 쾌쾌한 냄새와 가루로 여대생 흡연자는 늘 신경을 쓰며, 현재는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여성이므로 미래의 결혼, 임신시 흡연이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금연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담배를 끊을 때 체중이 증가됨을 경험하여 체중조절을 위해 더욱 흡연하고 체질적으로 담배가 받지 않아 흡연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즉, 체중조절은 흡연을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 담배냄새, 체질적 요소는 흡연의 시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타인의 영향>의 하위범주로 “타인의 흡연”, “타인의 금연권유”가 확인되어 졌다.

“타인의 흡연”에서 마스크에서의 여성흡연에 대한 눈길이 자신의 흡연을 강화시켰고 특히 친구와 이성교제시 함께 흡연함으로써 공감,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과거의 간접 흡연경험이 자신의 흡연에 대한 시도를 강화시킨다. 타인들 중 친구는 가장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흡연을 권유하며 동아리활동을 할 때 비흡연 여대생들은 흡연 여대생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타인의 금연 권유”는 가족, 선배, 친구, 이성친구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연하도록 권유함을 뜻한다.

<접근가능성>은 “시간적, 공간적 가능성”, “경제적 가능성” 정도에 따라 여대생 흡연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졌다. 여대생 흡연이 허용되어질 수 있는 카페나 하숙집, 화장실, 동아리방에서 가족이나 어른이 안계신 곳에서 흡연을 행하며 담배의 구입과 관련되는 경제적 인 요소가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 - 작용/상호작용적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

구체적인 상황아래서 흡연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으로 <가벼운 흡입>, <깊은 흡입> 범주가 확인되어 졌다.

<가벼운 흡입>은 입안에서만 연기를 흡입하고 그대로 뱉어내는 걸담배 피는 흡연방법이며 <깊은 흡입>은 흡입량을 증가시켜 연기를 깊게 심호흡하여 삼키는 흡연 방법으로 흡연의 초기에는 가벼운 흡입으로 흡연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깊은 흡입 방법으로 흡입을 행한다.

- 결과(con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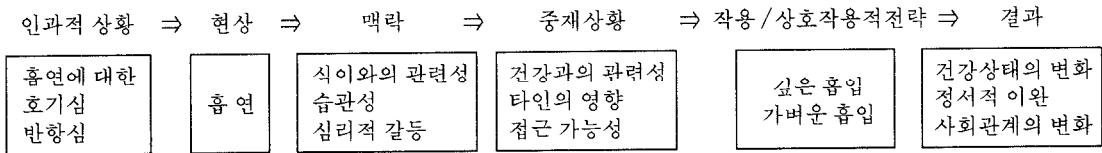
작용/상호작용적 전략의 결과로 <건강상태의 변화>, <정서적 이완>, <사회관계의 변화> 범주가 확인되어 졌다.

<건강상태의 변화>로 여대생 흡연자는 피곤함을 느끼며 쾌활량이 줄고 호흡이 짧아지고 상기도 호흡기 감염에 민감해졌으며 식욕의 변화, 피부색의 착색, 체중감소를 경험하였다.

<정서적 이완>은 여대생 흡연자는 흡연 후 감정이 자제 되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평안에 도달됨을 경험함을 뜻한다.

<사회관계의 변화>는 여대생 흡연자가 흡연 후 사회적 관계가 변화됨을 뜻하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어색하게 대하며 타인이 자신에게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행동함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축의 부호화 과정을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 자료의 관계진술, 가설적 관계개요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관계, 맥락, 중재상황, 그리고 상호작용적 전략과 결과의 속성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도의 영역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 진술로 나타낼 수 있었다.

- 1)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높을수록 흡연시도가 높아진다.
- 2) 식이와 관련된 상황일 때 흡연빈도가 높아진다.
- 3) 흡연의 습관성이 강할수록 흡연빈도가 높아진다.
- 4) 심리적인 갈등이 강할수록 흡연빈도가 높아진다.
- 5)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은 흡연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 6) 접근가능성이 높을수록 흡연빈도가 높아진다.

가설적 관계개요(story line)란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기술을 분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관계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은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반항심으로 흡연을 시도하게 되는데 흡연시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함께 느끼며 식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또는 심리적 갈등을 느낄 때 흡연을 하게 된다.

여대생 흡연자는 가벼운 흡입, 깊은 흡입방법으로 흡연을 하며 접근가능성, 타인의 영향,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정도는 흡연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대생 흡연자는 흡연으로 인해 건강상태의 변화, 정서적 이완, 사회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도해는 나타난 개념과 범주간의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Struss & Corbin, 1990)으로 여대생의 흡연과정에 대한 도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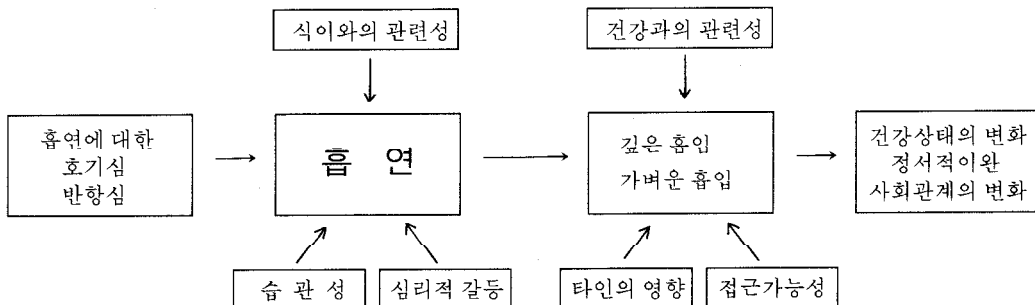


그림 1. 여대생의 흡연과정

## V. 논 의

중장년층 남성들의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 젊은 여성들의 흡연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놀이하는 청소년의 흡연과 함께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흡연을 진행시키는 조건에서 나타난 사례에서 보면 꼭 피워야 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한다기 보다는 어떤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시작하여 습관처럼 고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 대학생의 흡연이 호기심과 정서적인 안정추구를 위해 시작된다는 김(1990)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흡연동기와 관련된 타문헌을 보면 김(1989)의 연구에서 정신적인 이유가 45.1%이고 호기심이 25.7%였고 백(1986)의 고등학생 대상연구에서는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가 가장 큰 흡연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대생의 흡연의 진행요인인 “반항심”은 남성흡연에 대한 여성의 도전적인 흡연으로 보여진다. 흡연을 시작할 때 사회의 이목을 생각하며 거기에 맞서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흡연장소가 카페나 동아리방처럼 밀폐된 공간에 국한되어 행해지므로 참여자 자신들 또한 ‘여성으로서의 흡연’이라는 부정적인 사회 시각을 운연 중에 받아들이고 있다.

여대생이 흡연에 대해 가지는 중심적인 관념으로 당당함과 후회가 제시되었는데 여대생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져 남성의 경우와 같이 담배를 하나의 기호품으로 지각하며 남녀평등의 한 단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여성흡연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이므로 흡연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흡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흡연에 대한 당당함과 함께 자신의 흡연을 후회하고 은폐하려는 부정적인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후배나 자녀가 흡연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자신은 젊었을 때 한 번 시도해보는 경험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흡연사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여대생 흡연자가 자신의 흡연을 남성흡연과 동등한 것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신 또한 여성흡연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양가감정 상태임을 나타낸다.

즉 흡연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흡연을 하면서도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 <식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상황적 요소가 특징적이었다. 술좌석에서는 주위사람들이 많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으로 더욱 흡연하게 됨을 알 수 있고 연구대상자중 많은 사람이 식사후에 흡연을 하면 소화가 잘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고 특히 많이 먹었을 때 포만감을 완화시킴을 경험하고 있었다.

흡연을 수행하는 맥락으로 무료함을 느끼는 상황도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습관적인 흡연으로 볼 수 있다. 흡연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손장난거리가 없어서 담배니 리미터, 성냥을 만지작 거리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형태이며 아직은 니코틴 중독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심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낸다(김, 1987).

그러나 심리적 갈등이 심할 때 흡연하는 경우는 흡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의존도가 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인 긴장을 풀기 위해 흡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았는데 특히, 금연했다가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충동적으로 다시 흡연하거나 직업, 창작활동시,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흡연하는 경우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흡연의 심리적인 중독상태로 볼 수 있고 김(1987)의 연구에서 금연대책을 강구할 때 보다 더 금연의지의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로 제시된 바 있다.

흡연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상황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되어진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에서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대생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신의 건강에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끼지 못하며 다만 결혼 후 또는 임신시에 금연할 필요성만 느끼고 있다. 이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각이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김(1987)과 문(1995)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는데 청년층은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여대생이 젊음으로 인해 건강에 대해 자만하고 또한 자신에게는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우세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므로 여대생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을 강화하고 촉진시키는 요소로 “타인의 영향”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마스크와 친구의 흡연, 간접흡연 경험이 흡연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주위에서 담배를 권하거나 흡연할 때, 간접흡연을 참을 수 없어 다시 흡연하게 되고 집단활동을 할 때 자발적이기 보다는 흡연 분위기에 편승해 흡연하게 되며 매스컴에서의 여성흡연장면이 흡연자에게 긍정적, 호의적으로 지각된다.

이는 김(1987)과 문(1995)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흡연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흡연에 대한 사회적 규제나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인 금연운동이 흡연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흡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시간, 장소, 경제적인 요소가 흡연을 촉진시키는 요소임을 나타내는데 여대생의 경우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을 받아 흡연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남성 흡연과는 달리 여성 흡연의 경우에 흡연에 대한 접근가능성 정도가 흡연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흡연을 다루는 전략면에서 깊은 흡입과 가벼운 흡입의 2가지 형태가 제시되었는데 여대생 흡연은 흡연 초기에 또는 체질적으로 담배가 맞지 않은 경우에 입안에서 난 연기를 머물게 하고 내뿜는 입담배 형태의 가벼운 흡입형태의 흡연을 행하나 어느정도 흡연경험을 가진 후에는 목구멍으로 연기를 삼키면서 코로 연기를 내뿜는 깊은 흡입형태의 흡연방법을 사용한다. 참여자들은 깊은 흡입법으로 흡연할 때 두통, 나른함, 어지러움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상태의 변화 중 호흡기계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특히 여대생의 경우 체중의 변화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체중의 감소를 위해 흡연을 시도하고 금연할 경우 체중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흡연하는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그 체중이 평균 2-3kg이 적는데 이는 흡연이 식욕감퇴를 유발시키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저산소증에 의해 조직의 산소결합능력과 산소압이 감소되기 때문이다(김, 1987).

흡연 후 참여자들은 정서적으로 이완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흡연에 대해 사회심리적 의존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흡연 후 마치 원기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불안이 해소되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이 느끼는 상태로 니코틴 중독상태를 뜻한다. 이러

한 사람의 경우 금연시 금단증상이 쉽게 나타나며 금연하고자 할 경우 금연의지가 더욱 강하게 필요함이 김(198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여대생 흡연의 경우 남성 흡연과 달리 흡연 후 사회관계가 변화됨을 경험하였는데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본인이 느끼므로 자신의 흡연요구를 좌절당할 때가 많으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며 비흡연자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변화로 여대생 흡연자는 흡연행위에 대해 불안해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 이는 흡연이 미치는 건강상의 해악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여대생 흡연자의 경우 타 연령에 비해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고 흡연동기도 호기심과 더불어 남성흡연에 대한 도전 또는 반항심으로 시작되며 흡연으로 인한 체중감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금연대책 수립시에 여대생의 흡연경험에서 나타난 중요한 의미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해 한국 여대생의 흡연행위의 과정의 파악에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여대생 흡연자 48명 이었고 자료 수집기간은 1995년 11월부터 1996년 6월까지였고 자료의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자료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6)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대생의 흡연은 호기심과 반항심으로 시작되며 흡연시 당당함과 후회의 느낌을 함께 가지며 식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또는 심리적 갈등을 느낄 때 흡연을 하게 된다. 가벼운 흡입, 깊은 흡입방법으로 흡연하며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 타인의 영향, 접근가능성이 흡연을 촉진 또는 강화시킨다.

흡연 후 여대생은 건강상태의 변화와 정서적인 이완, 사회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여대생의 흡연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은 흡연동

기가 남성과 다르고 흡연에 대한 중심적인 관념 또한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을 함께 가지고 있어 남성 흡연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으로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

흡연 후 변화에서 남성흡연과는 달리 사회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전략 구축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대생의 금연전략 수립시 금연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흡연으로 인한 여성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며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금연전략이 요구되며 마스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실천가능하고 효율적인 금연전략을 수립한 후에 계속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위사람, 친구, 가족, 동료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또한 체중조절을 위해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체중조절을 위한 건강증진전략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여대생의 흡연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이므로 계속적으로 다른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여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발견하고 보완함으로써 여대생의 흡연행위 이론의 정련화가 필요하다.
2.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권혁진외(1990), “전공의에 있어 환자금연상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가정의, 11(9), 1-5.
- 김남성(1985).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상철(1987). 금연대책. 대한의학협회지. 30(8)
- 김애경(1994). 건강행위에 대한 한국 청년의 주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섭(1982). 교육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 김은지(1991). 서울 시내 일부 중년층 남성의 금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 김일순(1987).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30(8). 825-830
- 김일순(1991). “알고계십니까? 담배의 해독을” 한국 금연 운동 협의회.
- 김종성, 이민동, 각기우, 이해리, 윤방부(1989).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 양상. 가정의, 10(5), 11-21
- 김지원(1992). 일부 여자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 논문
- 김택민(1990). 고교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홍기(1993). Q방법론의 과학성실험구. Q방법론에 관한 연구발표회 자료, 한양대학교 언론 문화 연구소
- 민병근, 이길홍(1976). 한국청소년의 금연양상. 중앙의대 교수논문집 2, 30-338
- 박선섭(1989). 흡연과 건강관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2), 66-74
- 서일(1988). 한국인의 흡연율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0(2)
- 오희철외(1991). 니코틴 경피 공급의 금연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역학회지, 13(1), 63-72
- 이계은(1992).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1987).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의 따른 요인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 서요숙, 조웅준(1992). 가정의학과 외래환자의 흡연양상. 가정의학회지, 13(11)
- 전병재(1978). 사회심리관점과 이론. 서울: 경문사, 321
- 전상임, 박용우, 김철환, 정유석외(1992). 의사의 금연교육이 환자의 흡연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3(6)
- 정동식(1983). 흡연이 순환기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연옥(1988).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후(1971). 「지각심리학: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 Anderson M. R(1985). Risk of lung cancer, chronic bronchitis, ischemic heartdisease and stroke on relation to type of cigarette smoke. J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9, 286-293
- Andres, R. L. Atlerne J. T(1984). Effects of primary grades health curriculum project on student and parents smoking attitude and behavior. J of School Health, 54(1), 18-20.

- Bailey, William(1985). Ten smoking Education program for schools. J of School Health, 5(1), 33-34
- Brink, S. G(1988). Developing comprehensive smoking control programs in school. J of School Health, 58(5), 177-180
- Combs, A. W & Snygg's, D(1971).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Y : Harper & Brothers
- Deanfield, J., Wright, C., Krikler, S., Ribeiro, O., Fox, K(1984). Cigarette smoking and the treatment with propanol, Atenol and Nifedipine. New Engl. J. Med., 310, 951
- Fielding, J. E(1985). Smoking : Health effects and control.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3(8), 555-56
- Glynn, Thomas J(1989). Essential elements of school 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J of School Health, 59(5), 181-188
- Green, Lawrence, et al(1980). Health Education Planning : A Diagnostic Approach. Palo Alto : Mayfield publication company
- Health and Public Policy committee(1986). Position Paper : Methods for stopping Cigarette Smok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05, 281-291
- Hirayama, T et al(1981). Non-smoking wives of heavy smoking have a higher risk of cancer : A Study of Japan, 118(7), 521-525
- Hoffman, D. H. et al(1983). Cigarette side stream stroke : formation analysis and model studies on the up take by non smokers. presented at the U. S. Japan meeting on new etiology of lung cancer, Honolulu, March, 21-23
- Holroyd, J(1980). Hypnosis treatment for smoking : an evaluative review. Intl, J Clin Exp Hypn, 28, 341-57
- Kark, J, D(1981). Smoking and epidemic influenza life illness in female military recruits : A brief of survey, AJPH, 71, 5, 530-532
- Kirscht, J. P. et al(1987). Cigarette smoking and change in smoking among a cohort of michigan adults, AJPH, nn(4), 501-502
- Lamontagne Y. Annable L(1979). Acupuncture for smokers : effect of expectation on outcome. Am. Acupuncture, 7, 255-9
- Moos R. A., Prue, D. M., Lomax, D., Martin, T. E (1982). Implications of self-monitoring for smoking treatment : effects on adherence and session attendance, Addict Behav, 7, 381-5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1993). Clearing the Air How to Quit Smoking and Quit for Keeps. National Cancer Institute
- Penner M(1989). Economic incentives to reduce employee smoking : A health insurance surcharge for tobacco using state of Kansas employees. Am. J Health promotion, 4(1), 5-11
- Roberts, Lawrence et al(1989).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 1st ed. prepublication
- Strouss, Corbin(1990),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utton, S. R, Russel, M. A. H, Lye, R(1982).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yields, putting patterns and smoke intake : Evidence for tar compensation?. Br. Med. J, 285, 600
- Thomas E. Kolffe et al(1988). Attributes of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in medical practice : A meta-analysis of 39 controlled trials. JAMA, 259(19) : 2883-2889
- Vaies, H. D., backier, E(1994). Self Efficacy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Quitting among pregnant woman who smoke. Preventive Medicine, 23, 167-174
- Young, R. L., Elder J. P(1988). Tobacco use prevention and Health facilitator effectiveness. Journal of School Health, 58(9), 370-373
- Bonham, G. S(1981), Children's Health on Families with Cigarette Smokers AJPH, 71(3)
- Rona, R. J(1995), Exposure to Cigarette Smoking and Children's grow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14(3), 402-409.
- Berkey, C. S(1984), Passive Smoking and Height growth of Preadolescent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13(4), 454-458.
- McDermott, et al.(1992). Multiple Correlates of Cigarette 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April, 62(4). 146–150.

Penner M(1989). Economic Incentives to Reduce Employee Smoking : A Health Insurance Surcharge for Tobacco Using State of Kansas Employees. 4(1), Psychological Review. 4, 191–215.

Sandler, D. P(1985), Cancer risk on adulthood from early life exposure to eats smoking AJPH, 75, 487–492.

– Abstract –

Key concept : College Women, Smoking Behavior

**The Study of Smoking  
Behavior in College Women  
: A Grounded Theory Approach**

*Kim, Moon Sil\* · Kim, Ae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ocess of smoking behavior of college women with a history of smoking. The subject were 48 female students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from a womens' university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using audiotape recordings done over a period of seven months.

The data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by a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which new data were continuously coded into categories and properties according to strauss and corbin's methodology.

Analysis of the data resulted in identification of 15 categories representing 34 concep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Smoking in college women is caused by either curiosity or antagonism toward male smokers
2. The meaning(phenomena) of smoking behavior in college women is justifiable or regrettable
3. Smoking occurs in connection with eating, during period of psychological conflict or as an habitual practice
4. Smoking behavior i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harmfulness to health, influence of others and the accessability of cigarettes.
5. College women experinced a change in their state of health, emotional relaxation, change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decreasing smoking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Dan Kook University